

---

# 서 평

---



## 초현실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송진석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최근 출간된 오생근 교수의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을 펼쳐들면서 필자가 우선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언제나 어김없이 필자를 매료시키는, 다양한 모습의 초현실주의 그룹 멤버들을 보여주는 흑백사진들이다. 대개 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일단의 젊은이들이 더없이 진지한 눈빛으로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거나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자질구레한 일상적 관심과 이해관계를 훌가분히 뛰어넘어 인간의 해방이 문제되는 드높은 차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씩씩한 영웅들의 모습이다. 줄리앙 그라크는 앙드레 브르통을 논한 책을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초현실주의 그룹의 수장을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불렀거니와 비단 브르통뿐만 아니라 그의 모험에 동반자로 나섰던 동료들 또한 영웅으로 불러 마땅할 것이다. 범용한 현실에 반항하며 새로운 현실, 상위의 현실을 추구하는 그들의 노력에서 우리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적 존재를 가리키는, 곧 일상적 현실의 요청을 거부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 스스로를 던지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을 확인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이라는 것이 워낙 전투적인 모험과 파괴적인 혁신을 본질로 삼는다지만 과연 초현실주의 시인들 말고 어떤 아방가르드 유파의 시인들이 그렇듯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대략 르네상스 이후로 서양을 지배해오던 세계관이 지각변동을 맞이하던 시기에 수 없이 명멸했던 아방가르드 예술운동 가운데 그 성과나 영향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위상을 지니고 나타나는 것은 초현실주의이다. ‘세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와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랭보의 명제를 동시에 추구하며 현실과 꿈,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비이성을 종합하고자 했던 이 운동의 가장 큰 기여는 이성의 틀 안에 갇혀 반복되는 기존의 합리주의적 재현 방식을 문제 삼고 삶 일반을 지배하는 구습과 금기에도 도전함으로써 꿈, 무의식, 우연의 차원으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보다 자유롭고 완전한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목표가 원대하고 대담했던 만큼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와 모순들, 또 시간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꺾어야 했던 운동의 쇠퇴, 그리고 특히 인간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그것의 입장과는 달리 서양 근대의 휴머니즘 전통을 반성하며 반(反)인간주의적 태도를 보인 이후의 정신사적 흐름은 그 어떤 문예사조의 것보다 강렬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초현실주의를 눈에 띄게 수그러들게 만들거나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난해하고 혼돈스러운 어떤 것으로 비쳐지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것의 다양한 발견들은 20세기 문화예술의 저변으로 동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화지에 몇 가지 색깔의 물감을 짜 놓은 뒤 그것을 반으로 접어 전혀 예기치 못한 화려한 형상을 얻어내는, 특히 유치원생들이 많이 즐기는 데칼코마니가 오스카르 도밍게스로부터 비롯된 초현실주의의 성

과라면? 그리고 역시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따라서 많은 어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몰두해본 적이 있는 나뭇결이나 돌 등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숯을 문질러 모양을 얻어내는 프로타주와, 종이, 나무, 모래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한 데 모아 층들의 미학을 생성해내는 콜라주(콜라주는 원래 피카소가 고안해낸 것이지만 나중에 막스 에른스트가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으로 발전시킨다)가 초현실주의의 전유물이라면? 또한 마르셀 뒤샹을 계승한 앤디 워홀로 대표되는 미국의 팝아트,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편의 메시지와 다른 한편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결부시키는 예술작품과 광고물들도 초현실주의의 표현 방법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영향 아래 더욱 발전하거나 그도 아니면 그것이 고안한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면? 초현실주의는 의외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친숙한 것일 수 있다. 즉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20세기 문화에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오생근 교수의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은 이런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선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그리고 번역서를 제외하면 초현실주의에 관해서 지금까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간행된 저작의 수요가,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다는 가정 아래, 채 다섯 손가락을 넘지 못하는 빈곤한 연구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혼자서 국내의 초현실주의 연구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구자의 작업임을 고려할 때, 초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하는 대단히 반가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초현실주의 연구의 향후 지평에 뚜렷이 세워진 하나의 이정표로서 한편으로는 견고한 머릿돌의 역할을,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본보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평가는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책의 발생과 체제에 구체적인 근거를 둔 진단이다.

국내 저자의 작업이든 아니면 외국 저작의 번역이든 국내에서 간행된 초현실주의 연구서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초현실주의 전반에 대한 개론서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된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여기에는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한 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이다. 이들 저작들과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을 구별 짓는 주된 특징은 그것이 초현실주의를 전체적으로 접근하되 개론서들이 일정하게 보여주는,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독립적 성격이 강한 여러 장들을 배열하고 구조화하여 전체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이 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쓴 논문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83년에 발표된 제1장 「브르통과 초현실주의 혁명의 의미」이고, 제일 나중에 쓴 것은 2010년 겨울에 발표된 제12장 「브르통과 바타유의 논쟁과 쟁점」이다. 무려 27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성찰과 글쓰기가 이 한 권의 책에 모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아니면 선택된 주제에 부합하는 글들을 골라 엮은 어느 앤솔로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저자는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그간의 작업을 조감하고 선별하여 배치하되 한 권의 책을 구성하기 위한 전망 속에서 논문들의 다양한 층위에 세심한 손질을 가하고 필요한 대목을 조정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즉 다시 쓰기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책의 균형과 완결성을 위해 몇 개의 장을 새로이 쓰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쓴 브르통과 바타유의 논쟁에 대한 글 외에 2010년 여름에 연거푸 쓴 제6장 「엘뤼아르와 초현실주의 시의 변모」, 제9장 「레이몽 루셀의 『아프리카에 관한 인상들』, 글쓰기와 신화」, 제11장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자크 엘로드와 초현실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 덕분에 책은 한 번에 쓴 것 같은 체제와 어조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이 다루는 주제의 폭이 대단히 넓다는 사실이다. 초현실주의의 절대적인 부분을 떠 뺐던 브르통 외에 트리스탕 차라, 엘뤼아르, 아라공, 데스노스, 루셀, 그라크, 바타유, 사르트르,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들인 달리, 마그리트, 에롤드가 본격적인 논문의 형태 아래 고찰되고 있고, 자크 바세, 피카비아, 필립 수포 등도 상당한 비중과 깊이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작가를 다루는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 다음 그에 관련된 부분만 고려한다거나 심지어 세컨드 핸드로 만족하면서 여러 작가의 작품을 살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의 경우 해당 작가의 작품과 그에 관련된 연구서들을 넉넉한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한 뒤 스스로의 분석과 성찰을 각각의 논문에 정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두 해의 작업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연구를 이 책은 담고 있는 것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앙드레 브르통과 초현실주의>라는 제목 아래 다섯 개의 장을 모아놓고 있다. 책이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것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분량이 브르통에게 할애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초현실주의에서 브르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1924년에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쓰는 등 초현실주의 초기부터 그룹의 이론적, 정신적 중심점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권위로써 운동을 이끌었다. 초현실주의 그룹의 멤버가 된다는 사실은 그룹이 요구하는 원칙(가령 직업을 갖지 않는다거나 마약과 동성연애를 삼가는 것 같은)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룹이 추진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그것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갖가지 행사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듯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개성 강한 시인과 예술가들을 이끈 카리스마는 대체 어떤 것일까, 언뜻 납득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운동이 한계와 모순을 노출하면서, 또 1932년에는 아라공, 1938년에는 엘뤼아르가 그룹과 결별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초현실주의를 떠나면서 브르통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상황에서 운동을 지탱해야만 했다. 초현실주의를 논할 때 브르통의 몫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에 근거하며, 제1부의 높은 비중은 그 같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제1부는 사랑, 자유, 혁명, 시처럼 초현실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주제들, 그리고 자동기술, 초현실주의 이미지, 객관적 우연 같은 핵심적 개념들을 두 개의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비롯하여 『나자』, 『연통관들』, 『열애』, 『아르칸 17』 등, 브르통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루고 있다. 특히 제1장 「브르통과 초현실주의 혁명의 의미」는 맨 앞자리에서 책의 전체적인 조망을 제공해주면서 초현실주의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상기시키고 있거니와 거기서 혁명은 꿈과 사랑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혁명이며 사랑은 “사회의 인간화를 꿈꾸게 하면서” “세계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연결되는 사랑”이고 “시와 예술은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드높은 자유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정신적 높이를 계속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 책의 두드러지는 미덕은 무엇보다도 깊이 있고 입체적인 논의에 의해 초현실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2장 「자동기술과 초현실주의적 이미지」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자동기술 작품인 『자장』과 『용해되는 물고기』에 나오는, 그야말로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텍스트들에 대한 끈기 있고 치밀한 분석뿐 아니라 두 책에서 각각 한 편씩 뽑은 텍스트의 번역을 덤으로 직접 접해볼 수 있는가 하면, 제5장 「『열애』와 자동기술의 시 그리고 객관적 우연」에서는 『열애』가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브르통 자신의 사랑을 겪은 그대로 서술한 만큼 더욱 감동적인 객관적 우연의 한 예에 대한 분석을 마치 재미있는 사랑 이야



기를 대하듯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다. 제3장 「브르통과 다다」 같은 글은 또 다른 어조를 채택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껏 알고 있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수정하게 만든다. 문학사 관련 글들에서 우리는 흔히 읽는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루마니아 청년 트리스탕 차라의 주도로 다다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로지 파괴만을 말하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던 다다는 그것에 속해 있던 브르통 등에 의해 꿈과 현실을 종합하고자 하는 보다 건설적인 초현실주의로 계승된다고. 그러나 다다라는 말을 깨고 나온 초현실주의라는 선조적인 기술은 실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하나의 편향되고 단순화된 이미지임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다다가 출발하는 1916년부터 본격적인 초현실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1922년 무렵까지 취리히와 파리에서 일어난 다양한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두 그룹의 관계를 선입견 없이 검토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애쓴다. 아울러 브르통으로 하여금 말라르메를 중심으로 한 상징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다의 파괴적인 활동에 공감하면서 스스로의 관심에 예리한 깊이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 자크 바세의 영향을 비중 있게 강조한다. 요컨대 제1부 <앙드레 브르통과 초현실주의>는 초현실주의의 역사, 이념, 활동, 개념, 영향관계 등을 구체적인 작품의 인용과 분석을 통해 견고하고 심도 있게 고찰한다. 동시에 앙드레 브르통이라는 거인의 육중한 작품 세계를 다양한 국면의 접근을 통해 직접 음미하도록 하면서 차츰차츰 그의 열정적인 초상을 그려내기에 이른다.

제2부 <초현실주의 시와 소설의 다양성>은 브르통과 함께 초현실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영향권에 놓이는 작가들을 다루고 있다. 브르통과 더불어 초현실주의 삼총사 격인 엘뤼아르와 아라공을 비롯하여 그에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로베르 테스노스, 그리고 초현실주의

자는 아니지만 브르통에 의해 “일화에서 초현실주의자”로 인정된 레이몽 루셀, 또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고 브르통과 내내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초현실주의에 가입하는 것은 거부했던 줄리앙 그라크가 그들이다. 초현실주의의 풍부하고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제2부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장은 모두 다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갖는다. 아라공과 테스노스는 비중 높은 작가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는 필자가 알기로 석사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제7장 「아라공의 『파리의 농부』, 현실성과 초현실주의」와 제8장 「테스노스의 『자유 아니면 사랑을!』과 도시의 환상성」은 사실상 두 작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최초의 글들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사정은 제9장 「레이몽 루셀의 『아프리카에 관한 인상들』, 글쓰기와 신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루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는 작가이다. 다만 미셸 푸코가 『레이몽 루셀』이란 책을 쓴 덕분에 그의 이름이 우리 귀에 얼마간 익숙해지긴 했다. 이 글은 작품 한 편 번역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루셀을 선보이는 최초의 논문인 셈이다. 제10장 「줄리앙 그라크의 『아르골 성(城)에서』와 새로운 초현실주의 소설」 또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금이야 그라크의 주요 작품이 번역되어 있고 학위논문 외에도 적잖은 학술논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글이 처음 발표되던 1986년 당시만 해도 그라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상태였다. 저자는 우리 학계에 그라크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려니와 이 논문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라크에 대한 연구가 적잖이 발표되었으나 그의 처녀작이며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하지만 난해하기로 이름난 이 『아르골 성에서』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의 연구로는 아직도 이 글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2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글은 제6장 「엘뤼아르와 초현실주

의 시의 변모」이다. 초현실주의와의 인연에 대한, 나아가 공부에 대한 저자의 남다른 감회를 읽을 수 있는 책머리에 붙인 서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엘뤼아르의 시 「자유」는 저자가 맨 처음 접했던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저자에게 “전율에 가까운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석사논문과 학술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또한 그의 시를 골라 1973년 번역시집 『이곳에 살기 위하여』를 간행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자유」가 널리 알려진 친숙한 시가 된 데는 이 시집의 역할이 컸을 터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엘뤼아르의 작품을 통해서 초현실주의에 입문했고, 그렇게 구체화된 관심을 더욱 발전시켜 초현실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브르통에게로 나아간 셈이다. 한데 「엘뤼아르와 초현실주의 시의 변모」는 과거에 쓴 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대신에 이번 책을 위해 그간의 엘뤼아르 연구를 새로이 정리한 논문이다. “이 무렵 엘뤼아르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그의 시를 다시 읽으면서, 20대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만큼 내가 변화했음을 의식하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기도 했다.” 서문에서 발췌한 이 말은 제6장의 성격을 잘 보여주거니와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공부’에 힘쓴 학자의 이 육성은 대단히 힘차고 감동적인 것이다. 「엘뤼아르와 초현실주의 시의 변모」는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거치면서 고수된 엘뤼아르의 시에 대한 애정을 정확하고 엄밀한 어조로 고찰하면서 다음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다. 엘뤼아르는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과 이미지가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서면서 시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의사소통으로서의 시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이는 초현실주의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결별과 함께 갈등과 긴장이 사라지면서 그의 참여시는 종전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기에 이른다. 하지만 사랑과 자유를 노래한 이 시인의 참여시 가운데에는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시들이 적지

않는데 이 시들은 초현실주의의 흔적을 간직한 시들이다…… 엘뤼아르의 경우는 문학에서 새로움과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문학과 예술에서, 나아가 삶과 표현에서 우리가 초현실주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뚜렷하게 부각시켜준다.

제3부 <초현실주의, 수용과 비판>은 초현실주의의 발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미술 영역을 살피는 한편 브르통과 바타유의 논쟁을 고찰하고 사르트르의 초현실주의 비판을 검토하고 있다. 제11장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자크 에를드와 초현실주의」는 브르통과 초현실주의에 대한 견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 화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행한다. 이어지는 두 글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초현실주의의 또 다른 면모를 예리하게, 그리고 필요한 균형 감각을 발휘하면서 신중하게 보여준다.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모습을 중심에서, 혹은 그것이 발전되어 나간 몇 가지 방향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피던 책의 어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반성적인 차원에 위치하며 스스로의 주제를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제12장 「브르통과 바타유의 논쟁과 쟁점」은 바타유가 제기한 위반, 에로티즘, 소비 등의 개념, 그리고 브르통과의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던 ‘하류 유물론 le bas matérialisme’의 개념을 설명한 뒤 특히 사드 해석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격렬한 논쟁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저자의 깊고 날카로운 시선이다. 그는 논쟁을 통해 두 사람이 얻고 잃은 것, 그리고 가열된 논쟁에서 목도되는 아쉬움 같은 것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13장은 초현실주의를 철없는 젊은이들의 무책임한 반항으로 치부했던 「사르트르의 초현실주의 비판」을 찬찬히 따져보며 분석하고 있다. 사르트르의 지적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는 이 글에서도 저자의 사려 깊은 비평 태도는 다시 한 번 빛난다. 그는 사르트르의 비판에서 단순한 하나의 공격을 보는 대신에 “그 자신의 문학적 한계를 포함한 부르주아 문학

의 한계를 정면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자기 부정적 정신의 표현”을 읽는다. 제3부는 이렇게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해 고찰하고 초현실주의 일반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외에 바타유와 사르트르라는, 20세기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폭과 깊이를 겸비한, 초현실주의에 대한 뛰어난 저작의 출간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된다. 1919년 브르통이 필립 수포와 함께 최초의 자동기술 텍스트 『자장』을 쓰면서 초현실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근 100년이 지난 오늘날 초현실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먼저 이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20세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유용한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초현실주의는 보다 완전한 인간, 그리고 이런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지향한다. 이같은 가치관은, 서양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또 극복하고자 20세기 내내 지속되고 발전되며 서양 정신의 주류로 자리잡아온 반인간주의적 흐름과 대립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것은 더욱 요긴한 비판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의 제1부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바, 초현실주의자들의 놀라운 패기와 열정이다. 많은 경우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제약을 벗어나 드높고 자유로운 정신을 갖기 위해 직업 갖기를 거부하고 가난을 감수하며 꿈과 현실의 종합에 매진했던 그들의 씩씩함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담대한 문제 제기 및 보다 자유롭고 확장된 생각과 표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고 정신의 높이를 피하려는 그같은 패기와 열정은 진정 학문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주요한 덕목일 터인데, 맹위를 떨치는 물질 앞에서 나날이 왜소해져 가는 정신을 확인하게 되는 요즘 그것들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누군가 청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고 했는데, 나에게서는 초현실주의의 자유와 혁명이라는 말만 들어

도 새로운 열정이 차오르는 것 같다”는 저자의 책머리 말은 개인적 소회의 토로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근본적 의미와 깊이에서 소통하는 슬회인 듯 여겨진다.